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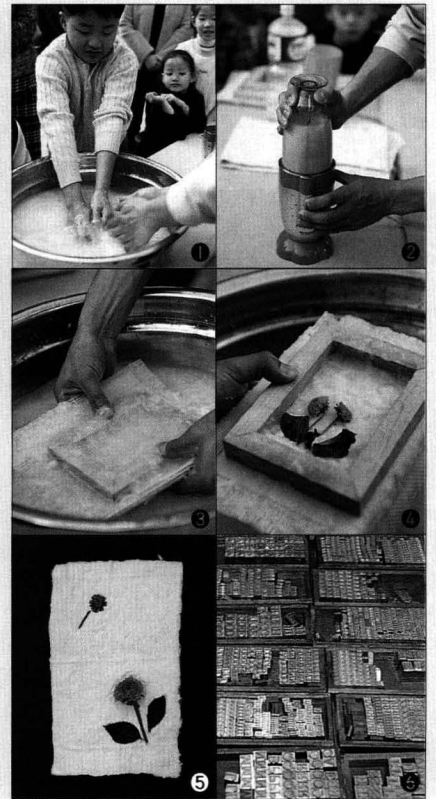
## 속살을 드러낸 책 만나볼래?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!

지난 11월 4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책공방 사무실 앞마당에서는 7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책을 만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. 학교,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책을 내 손으로 만들어보며 종이문화를 체험하자는 취지로 모인 참여자들은 때론 진지하게, 때로는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직접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.

수제책 제작업체인 책공방 대표 김진섭 씨는 일반인들에게 종이뜨기, 활자조판, 인쇄과정 등의 책 제작 이론교육과 실습기회를 주고 싶었다면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 아이들은 완성된 책 위에 자신의 이니셜을 찍으며 한 권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지켜봤다. 자녀(최성준·청학초등학교 5년)와

함께 책공방을 찾은 최문범(40) 씨는 "인터넷을 통해 우연치 않게 이 공간을 알게 되었다"며 아이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.

이날 책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한 책공방은 제작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도서 제작에 혁신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제작업체. 김 대표는 "출판 분야를 공부하면서 우리 출판계가 너무 획일화된 건 아닌가 의문을 가져봤다"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책공방의 누드양장제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. 누드양장 제작은 양장의 두꺼움과 무거움 그리고 책에 포인트를 주지 못한다는 무선제책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면서 책등의 실이 그대로 보이도록 제작된 책이다. 김 대표는 이 제작법을 국내 최초로 시도, 특허를 받았으면서 "제작단가는 낮추되 예술성을 충분



### ● 나만의 책 만들기

1. 종이를 물에 불린다.
2. 기계를 이용해 굵게 간다.
3. 불린 종이를 틀에 넣는다.
4. 원하는 장식 소품으로 표지 장식을 한다.
5. 햇빛에 말린다.
6. 자신의 이니셜을 새긴다.

히 살리면서 본문에 색지와 색실을 활용하거나 책의 내용과 형식, 디자인에 따라 색지와 색실을 바꿀 수 있어서 상품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출 수 있다"고 설명했다. 이 책은 투명한 PVC재질의 케이스에 담겨 있어 팬시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젊은 층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미 대형서점 서가에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상태다. 김 대표는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책 제작과정을 출판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경험하길 바라면서 책공방을 출판관련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. ☞

문의 : 책공방 02-338-5101

www.bookworks.co.kr

취재 김청연 기자 · 사진 박신우 기자